

캐스퍼 EV·기아 EV3, 수요 둔화 전기차 시장 구해낼까

하이브리드에 밀려 판매 담보... 소형·중저가로 돌파구 모색 사전예약·모터쇼 긍정 신호...친환경차 시장 새 바람 기대

최근 친환경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차 보다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새롭게 출시된 국내 브랜드 전기차가 친환경차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아의 세 번째 상용 전기차 EV3는 최근 사전 예약만 2만 대가 넘어섰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 EV는 출시 전 모터쇼 공개행사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생산 물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전기차 '개꿈'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소형화 전략을 탈출구로 내세우고 있어 캐스퍼 EV와 EV3의 국내외 경쟁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친환경차는 작년 말 대비 29만3000대(13.8%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7000대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다. 특히 내연기관차는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감소한 내연기관차 대수(8만5000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와 휘발유차는 증가했지만 경유차가 20만대 감소하면서 전체 내연기관차 감소를 견인했다.

약 14% 증가한 친환경차 중에선 하이브리드차가 22만9000대(14.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기차는 11.5% 증가한 6만2000대, 수소차는 2000대(5%)가 늘었다.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증가세는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광주에 누적 등록된 하이브리드차는 4만5698대로 작년 말(3만9965대)보다 14.35% 증가했다. 전기차는 1만 2538대에서 1만 3485대로 7.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차는 17% 증가할 동안 전기차는 14% 늘었다. 두 지자체 모두 하이브리드가 전체 친환경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중반대다.

중저가 전기차 수요가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중저가 보급형 모델로 전기차 '대중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업 예상만큼의 수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되, 중저가 모델



캐스퍼 EV.

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화 전략에 가장 먼저 나선 건 중국 BYD(비야디)다. BYD는 저가 모델을 출시하면서 지난해부터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테슬라도 이에 맞서 지난해부터 중국산 모델 Y를 생산 중이다. 중국산은 미국산보다 성능은 뒤쳐지지만 가격이 많게는 1500만원 가량 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저가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이면서 현대차



기아 EV3.

그룹이 생산하는 중·소형 전기차도 주목받고 있다.

먼저 기아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가 대표적이다. EV3는 지난 6월 출시됐는데, 사전 예약 1주일 만에 주문량 6000대를 넘어섰고, 최근 계약물량이 2만 대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아는 EV3에 등급 최대 수준의 81.4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501km에 달한다.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 EV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1호차 생산기념식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캐스퍼 EV는 국산 전기차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로, 2000만원 초반대의 가격 때문에 엔트리급 전기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스퍼 EV는 앞서 부산모터쇼를 통해 출시 전 대중 앞에 공개됐는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캐스퍼 EV 생산기지가 GGM은 생산량을 당초보다 25% 늘려 2만140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그룹, 미래 친환경 인재 양성 '해피무브 더 그린' 론칭

대학생 100명·멘토 20명 발대식

현대차그룹은 22일 "미래 친환경 인재를 양성하는 '해피무브 더 그린(더 그린)'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대학생 100명과 임직원 멘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무브 더 그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수료 단원만 1만명 이상인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청년봉사단 '해피무브'를 환경과 미래세대에 초점을 두고 리얼인턴 프로그램이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환경이슈 특강 ▲단체 봉사활동 ▲독일 친환경 랜드마크 탐방 ▲환경 CSR 아이디어 발표 등 환경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단원들은 이날부터 25일 국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며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다.

8월에는 독일을 방문해 친환경 정책 도입 사례를 배울 예정이다. 단원들은 또 직접 구상한 환경 CSR 아이디어를 수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은 포상과 함께 제안된 아이디어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해피무브 더 그린"은 봉



22일 열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그린 리더 육성 프로그램 '해피무브 더 그린' 발대식에 참여한 단원들이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현대차 제공>

사, 해외탐방, CSR 아이디어 기획 등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 대학생

들이 오늘의 환경을 배우고, 내일의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리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N, TCR 월드투어 4라운드 우승

현대자동차가 '2024 TCR 월드투어'에서 또다시 우승하면서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22일 "더 뉴 엘란트라 N TCR(더 뉴 아반떼 N)이 지난 21일까지(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TCR 월드투어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 노버트 미첼리츠는 21일 치러진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노버트 미첼리츠는 이번 라운드 우승으로 올 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를 유지하게 됐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는 각각 8, 9위를 차지하며 시즌 드라이버 순위 5위에 올랐다. 두 선수의 선전 속에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는 총 383 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했다.

TCR 월드투어는 TCR 경주차를 활용한 글로벌 최상위 대회로, 전세계 TCR 레이스를 순회하며 경기를 치루 순위를 매긴다.

현대자동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팀 바텐베르크 상무는 "TCR 월드투어 개막전인 이탈리아 레이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 레이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엘란트라 N TCR



'2024 TCR 월드 투어' 4라운드 대회에서 현대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경주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TCR 월드투어 다섯 번째 레이스는 오는 8월 2

일부터 우루과이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여름맞이 캠페인' 엔진오일 등 무상점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2일 "오는 8월 24일까지 2024 여름맞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방문 고객에게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워셔액, 에어필터, 휠 및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된 고객에게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교체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

며, 메르세데스-벤츠 타이어 교체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렁크 정리함, 유리 및 휠 클리너 등 4종의 클리너와 타일 등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를 선착순 증정한다.

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리뷰 작성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2025 호주오픈' 볼키즈 20명 모집

기아는 22일 "2025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2025 호주오픈'에서 활약할 볼키즈(Ball Kids)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볼키즈는 테니스 경기 중 공을 수급, 처리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볼키즈는 '2025 호주오픈'의 경기에 참여하며, 약 3주 간 기아가 제공하는 호주 현지 문화 체험 기회를 갖게 된다. 기아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의 가장 오래된 후원사로, 지난 2002년 대회부터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 기준은 기아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구매·장기렌트·리스·중고차 포함)의 자녀·손자녀 중 만 12-15세(2009년 1월 2일~2013년 1월 1일 출생)

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 유소년이라면 누구나 볼키즈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기아 볼키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영어 능력 평가와 테니스 규정 관련 지식 및 운동 신경을 확인하는 실전 능력 평가를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볼키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볼키즈 프로그램은 테니스를 사랑하는 유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테니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호주오픈 볼키즈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희망의 공부방' 33호점 완공

금호타이어는 2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3호점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사진>

완공식에서는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과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참석해 공부방 현판 전달 등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33호점 지원 대상 아동은 15세로, 금호타이어는 아이가 원하는 공부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해, 책상, 도배 장판 등을 지원했으며, 학습 목표 세부 계획수립을 도왔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희망의 공부방 조성 이후 학생들의 후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육박

장마철 집중호우로 악화 우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8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최근 장마로 인해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작년 같은 기간(77.2%)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사별로 보면 이 기간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80.7%로 80%를 넘어섰고 나머지 삼성화재(79.2%), KB손해보험(79.4%), DB손해보험

(78.7%)의 손해율도 80%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집계된 집중호우 침수 피해 건수는 3427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310억6900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강우량이 우려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